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침묵으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평소처럼 1시에, 2부 예배는 2시 45분에 드립니다. 1부는 온라인 예배도 같이 진행됩니다(광고 6번 참조).
3.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고(아동부와 청소년부도 포함)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합니다.
4. 3월 한 달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두 가지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1) St David's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 2) 한국과 세계 곳곳에 창궐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화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5.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계속되어 8주차,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는 역대 하 17장부터 에스라 8장까지입니다.
6. 오늘부터 주일예배를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09 369 5077 / 021 968 388 www.youtube.com/calvaryorgnz
LTH-07@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3월 교회사역일지
3월 1일(주일) 사순절
3월 11일(수) 연합 찬양 예배
3월 25일(수) 1 남여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9일(주일) 성찬 주일

3/4월기도순서
3월 29일 (주일) 이광희 장로
4월 1일 (수) 박제란 권사
4월 5일 (주일) 김병진 목사
4월 8일 (수) 박후임 권사

3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박혜정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12호 2020.03.2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2부 오후 2시 45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히브리서 13:15-16 -----	인도자
✧ 찬 송	----- 35장 -----	다함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70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4:6-15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내 삶을 드립니다 -----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질문 속에 숨은 사랑 -----	이태한 목사
찬 송	----- 305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가 정 예 배)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요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주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동역자님께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늘 이곳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리며 제가 섬기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티그베니 교회

티비, 덩구차, 스토이카 형제가 사역하고 간혹 트라이안, 코스텔 형제가 주일 설교를 돕고 있습니다. 고아이면서 장애를 가진 미넬라는 고아원에서 전도 사역과 매일 저녁 기도 모임 인도와 찬양, 성경 암송 등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장애를 기도로 이겨내며 말씀 양육을 받는 가운데 사회적응 훈련도 잘 받아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고아원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머마야 집시 교회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립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루야 형제를 중심으로 교회 건물이 작아 더 큰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1999년 겨울에 처음 마을에 들어가 구루야를 전도하였는데 지금은 마을 교회로 이곳저곳 다른 마을 전도를 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집시 사역자들은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그루야 형제와 아동 비스킷 값을 일부 지원하여 줍니다.

오이에쉬티 마을 교회

그렇게 반대하던 니나 자매의 딸과 사위가 교회를 나오고, 요즘 주일 예배 후 말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로메오, 엘비스, 다비드, 일리에가 양육 받고 믿음이 자라 앞으로 오이에쉬티 마을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소식

트라이안, 아우렐, 구루야, 크리스티 형제와는 20년째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우렐은 오이에쉬티 현지 교회 목회와 교도소 사역을 하고, 트라이안 형제는 마을교회 고아원 사역을 함께 하는데 형제의 건강이 좋지 않아 1, 2년 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마을에 세운 교회들 중 리더가 없는 연약한 교회에 리더 양육 및 집시 종족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아동 성경 캠프, 적은 인원이라도 청소년 리더 훈련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각 마을 교회에 헌신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에스테라가 한 달 내내 감기 증세로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열이 내리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 강건하게 보호받은 교회가 되도록.
2.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 형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겸손이 도움을 구하는 온 민족과 열방이 되도록.

나눔란

2020년 3월 1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아벨의 믿음을 잇는 삶> 창세기 4:1~7

죄는 반드시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라나 서로의 탓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들의 자녀인 형제간의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된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기 아기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15)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가인을 보면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구원자 자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품었던 소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공허하다'는 뜻의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에게 절망을 준 가인과 동생 아벨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만(4:3)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4:4).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출 13:2)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것입니다(잠 3:9). 자기중심의 예배를 드린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뿐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4:4).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뿐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4:5). 삶과 제물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드리는 제물은 면죄부를 얻으려는 신앙과 같습니다. 삶과 마음을 담아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후 8:5) 헌금입니다.

3)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히 11:4) 믿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엡 2:8)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붙들려 산 아벨만이 믿음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히 11:6).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4:3)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는 심사할 때, 즉 결과물을 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예배자인지 심사 받을 시간, 심판의 시간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예배의 갱신과 회복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이 변화되는 갈보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4:9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